

# 광주시교육청,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 발대식' 개최

###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전문성 ↑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광주 수업 혁신 정책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광주과학 기술진흥원 국제회의장에서 2020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은 단위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서 수업·평가 사례를 공유하는 중·고등학교 교사 150명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이번 겨울 방학 동안 현장 교사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자체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원의 자발성과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공동실천-집단지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수업혁신 정책 중 하나이다.

전체 학교에 구축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교 안에서 교원역량강화 연수, 수업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 연구(수업나눔) 동아리 및 학습 공동체의 날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학교 당 400만~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은 학교 현장 및 수업·평가 사례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학습 연구

년제 교사 1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습 연구년제 교사들은 단위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일반화 자료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발대식의 특별 강연 중 군산시교육지원청 박일관 교육장은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광주지역 교원들이 교육과정 및 수업 등을 공유하고 배운 내용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교원들의 수업·평가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학국 시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은 질문이 있는 교실 속에 있고 교사는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통해 행복할 수 있다"며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이 학교와 학교를 연결해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단위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 수업·평가 지원단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수업디자인(교수-평-기) ▲과정 중심 평가 ▲자

유학년제 수업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교과 융합 수업디자인) 등의 영역을 개설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학생 참여형 수업·평가 ▲서울

형·논술형·수능형 평가 문항 제작 ▲진로선택과목 수업·평가 등의 영역을 개설해 3월부터 학교의 희망을 받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

조인호 기자

## 장흥 안양동초, 전국체전 연속 메달 획득

### 선진우(6학년) 학생, 크로스컨트리 개인전 동메달

장흥 안양동초등학교 6학년 선진우 학생이 지난 2월 19일부터 3일간 강원도 대관령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펼쳐진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또 한번 작은 학교의 기적을 보여줬다.

전교생 10명도 채 되지 않은 학교에서 전국동계체전 스키(크로스컨트리) 부문 2년 연속 메달리스트라는 쾌거를 이뤄낸 것. 선진우 학생은 지난해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도 크로스컨트리 남자 초등부 8km 계주에서 은메

달(2위)을 따낸 바 있다.

선 학생은 5학년이던 지난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기량 발전으로 화순초 6학년 학생들 3명과 함께 전남 대표 연결팀으로 뽑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전에서도 클래식, 프리, 복합 모두 11위를 기록하면서 101회 대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선진우 학생은 결국 이번 대회에서 크로스컨트리 남자 초등부 개인 복합(클래식 3km, 프리 4km 합산) 경기에 출전, 동메달(3위)을



따내는 기쁨을 토해냈다.

개인전 첫날인 2월 19일 클래식 3km에서는 5위(11분 02초)에 그쳐 준비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선수 본인은 큰 아쉬움을 느꼈다. 하지만 다음날(20일) 프리 4km에서 만회한다면 3위(10분 48

초) 선수와 14초 차이밖에 나지 않아 두 기록을 합산하는 복합에서는 3위권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선진우 학생은 심기일전으로 다음 날 경기를 준비했다.

개인전 메달이 간절했던 선진우

학생은 다음날 프리 4km 경기는 더 힘차게 눈길을 가로질렀다. 경기 결과, 전날 3위를 기록한 선수와 1분 가까이 벌리면서 복합성적 3위(24분 18초)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안양동초가 위치한 전남 장흥은 스키를 훈련하기에 지리적으로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선진우 학생은 강한 의지와 고강도 훈련으로 2년 연속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

이번 동계체육대회를 통해 선진우 학생은 동계 스포츠 종목 불모지 학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으며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몸소 보여줬다.

장흥=위지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 지역다문화교육 지원센터 '우수'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국가평생교육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공동 실시한 2019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에 조직을 마련해 지역 여건에 맞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 현장 지원을 하고자 다문화교육 모델을 구축했고,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 17개의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자율·책임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영역으로는 크게 주요사업관리, 센터관리로 나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주요사업관리 영역 중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공교육 진입 지원 및 한국어교육 운영 등의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전남교육청, 학생인권 사례집 발간

전남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구성원의 학생인권 관련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인권침해 관련 사안 및 각종 사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인권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눈에 잡히는 학생인권-사례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사례집은 휴대하기 쉽게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으며, 언제든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학생인권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참

고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꾸며졌다.

사례집은 최근 몇 년 간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안을 담았다. 특히, 학생인권의 주요 영역인 '차별금지' '폭력'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8개 영역별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이 사례집이 배포되면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허성은 기자

## 광주 진월초, 3월 6일까지 휴업 명령 받는다

코로나19 126번 환자의 아내(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진월초등학교에 대해 3월6일까지 폐쇄 수준의 휴업 명령을 내렸다.

특히 해당 교사가 2월19일 학교에 출근해 교직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진월초 전체 교직원에 대해 '자가 및 자율적 격리'를 지시했다. 또 시교육청은 19일 해당교사와 접촉한 교직원과 동거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자율적 격리

를 당부하고, 해당교사의 17일 이후 이동 동선과 교직원 접촉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향후 해당 교사와 관련한 대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교사와 접촉한 교직원들의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휴업 명령의 범위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진월초에 대한 방역 및 소독도 강화한다. 23일 긴급하게 특별방역을 실시했으며, 3일 간격으로 계속 특별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학국 교육감은 "학부모·시민 여러분께서는 학교의 통신문이나 문자안내를 참조하시고 학교의 조치에 적극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대응해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광주 전체 유·초·중·고의 교육활동을 2월29일까지 전면 중단했다. 초·중·고는 방과후활동과 돌봄교실을 중단했다.

